

# 민·관 '선박 사이버공격 대응 모의훈련' 실시

- 해수부, 과기정통부, 해경청, HMM,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참여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12일(수) '선박 사이버공격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선박과 육상 간 위성을 통한 통신 연계가 일상화되면서 선박 운항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위협이 커짐에 따라, 이번 모의훈련은 선박 사이버 공격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민간에서는 HMM,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선급이, 정부에서는 해양수산부, 과기정통부,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하였다.

훈련은 실제 해상에서 운항 중인 선박의 전자해도에 랜섬웨어가 설치되어 선박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 사이버공격 징후 감지 ▲ 상황 전파·신고 ▲ 대응·복구 ▲ 피해 조사 등 사이버공격에 따른 대응 전 과정에 대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선박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량의 99% 이상을 담당하는 해상공급망의 핵심 자원이다."라며, "이번 훈련을 토대로 선박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임정규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훈련은 선박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관계기관 및 선박회사 간 면밀한 공조와 연계를 실천과 같이 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라며, "축적되는 경험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박 뿐 아니라 다른 산업으로 모의훈련을 확장해 민간의 사이버 대응역량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부서	해양수산부	책임자	과 장	이민중 (044-200-5810)
	해사안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종영 (044-200-5818)
담당부서	과기정통부	책임자	과 장	최영선 (044-202-6450)
	정보보호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박세진 (044-202-6455)
유관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자	팀 장	서민석 (061-820-3850)
	디지털제품보안팀	담당자	책 임	김지명 (061-820-3853)